



黃性博 / 大亞리드線(株) 社長/本會 監査

## 己巳年을 回顧하면서

己巳年은 우리 電子工業人으로서 歷史的으로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그것은 30세의 장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電子工業 30周年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다채로운 이정표적인 자축행사에 電子工業人이 다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축하를 들었습니다. 電子工業 30年史도 발간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企業을 키워주신 企業人은 물론, 남모르게 일해주신 電子工業振興會 任職員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5월로 우리 大亞리드線(株)도 創立 20周年을 맞이했고 9월에는 企業公開도 함으로써, 본인자신으로서 社會的인 책임을 통감함은 물론, 실로 감회가 깊은 한 해였습니다.

회고컨대, 지난 1980년만해도 自立經濟元年이라는 經濟指標黑字를 歷史上 최초로 기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第10回 아시아게임을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그후 2년만에 '88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함으로써 명실공히 世界속의 韓國임을 확인하였습니다. 地球村 곳곳에서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KOREA,

漢江의 기적을 이룩한 나라 KOREA,

한번 가보고싶은 나라 KOREA, 東方의 용이 승천하려고 꿈틀

거리는 나라 KOREA라고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先進諸國들로 부터 경외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 경주에서 뒤쫓는 주자가 先頭走者에게는 위협적인 상대가 되기도 해서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시련들이 밀어 닥치기 시작 했습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海外與件은 先進國의 輸入規制에서 통상압력으로 견제의 회오리 바람은 날이 갈수록 숨결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게 목을 조이곤했습니다.

○원貨의 切上要求

○輸入開放擴大와 關稅率引下要求

○尖端産業에 대한 특허, 知的所有權爭의 심화 등으로 표출되어 갔으며

한편 國內與件은

○勞使紛糾로 인한 生産性低下

○輸出競爭力 쇠퇴

○企業의 投資心理萎縮 등으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對內外的인 요인으로 인하여 中小有望企業 가운데 702개 사가(全産業) 스스로 자격 포기했어야만 했고 그중 270개 사가 부도가 났고, 160개 사는 폐업되었으며, 한편 外國人 投資企業들은 勞使紛糾와 고임금에 견

디지 못해서 企業環境이 보다 좋은 나라로 철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20%이상의 雇傭減少現象이 나타났습니다.

실로 어려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려야만 하는지 우리 다 같이 반성 해야겠습니다. 올림픽을 치른 나라 중에는 더욱 발전해서 부강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발전의 계기를 끝내 잡지 못하고 쇠퇴해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어느쪽을 택해야 합니까? 이렇게 황금같은 기회를 남에게 돌아가라고 팔짱끼고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勞·使할 것 없이 다같이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갑시다. 그대로 침몰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86년과 '87년의 勞動生産性增加率과 賃金 引上率의 國別資料를 보면

日本 : 7.0/2.5 臺灣 : 6.9/9.7

美國 : 2.6/2.6

韓國 : 13.5/15 (단위%)

로 나타나서 우리가 가장나쁜 상태입니다. '87년과 '88년의 韓國의 증가율은 15%/20%로 더욱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우리는 發展途上에 위치한 나라의 企業입니다. 우리는 勞와 使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企業의 主人이 되었습니다. 이윤도 무리없이 적정선에서 재분

\* 1989年度 電子産業을 總點檢한다 / 送年특집 \*

배 되어야 합니다. 勞·使의 관계는 더불어 살아가는 一心同體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는 一致團結해서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신의를 바탕으로 결합된 불가분의 관계라고 봅니다. 분리되면 企業은 침몰하고 맙니다. 우리의 빛나는 祖國을 부강한 祖國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생명 다바쳐

후회없는 삶을 지켜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W. L. 메켄지 킹의 경영의 조건에 서술된 한 귀절을 소개 합니다.

「勞動은 資本없이 資本은 勞動없이 아무 것도 이를 수가 없으며, 勞動도 資本도 경영의 인도력 없이 아무 것도 이를 수가 없다」

그리고 경영의 재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 지라도 그들 企業이 위치하는 社會 주변에서 용인해 주지 않는다면, 즉 수인해 주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인도하는 권한과 책무를 인정해야만이 그 企業은 성공할 수 있다는 존귀한 교훈을 현실적인 시각에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 싶습니다.

